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당사상사업령도업적을 빛내여가자

유일사상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에 대한 혁신적인 강령을 선포하신 때로부터 어언 36년이 됐다.

이 위대한 강령이 제시됨으로 하여 우리 당사상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 수령판이 확고히 선주제형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업과 사회주의강성대를 건설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세인을 끌어우는 눈부신 전면이 이루어질수 있었다.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정력적으로 벌리며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오직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중해왔다.

시당위원회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계기와 공정을 넓혀 리용하여 방법론 있게 전행하고 있는 것이다.

『선군사상교양사업을 뚜렷한 표출과 방법을 가지고 혁신

순천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사업에서

직원선전판옆에 조선지도를 게시하고 거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을 날자별로 오각별로 표시하여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주민들에게 장군님의 애국현심의 정성을 가슴드겁게 새겨주기로 결심하였다.

시안의 모든 당조직들의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갔다.

시당위원회는 단위들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얼마나 솔직하게 전행하고 있는가 하는 실태를 깊이 연구하고 그에 맞게 교양사업을 참신한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힘을 넣었다.

혁명적 대고조가 일어나는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시당위원회가 시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장군님의 초강도 강행군길에 실상의 박동을 맞추고 순간간 순간을 깊이 살펴 일해나가도록 선군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짜고든 파장을 깊이 살펴 일해나가도록 선군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짜고든 파장을 깊이 살펴 일해나가도록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중해왔다.

시당위원회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계기와 공정을 넓혀 리용하여 방법론 있게 전행하고 있는 것이다.

『선군사상교양사업을 뚜렷

한 표출과 방법을 가지고 혁신

하게 전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정력적으로 벌리며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오직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계기와 공정을 넓혀 리용하여 방법론 있게 전행하고 있는 것이다.

『선군사상교양사업을 뚜렷

한 표출과 방법을 가지고 혁신

하게 전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정력적으로 벌리며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

사상교양사업을 계기로 전개되는

경에 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열혈의 선군혁명

동지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

데 사상교양사업의 힘력을 집

중해왔다.</

뜻깊은 탄생일도 조국통일위업에 바치시며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이하여 무한한 환희와 기쁨에 휩싸인 우리 인민들은 지금 조국의 통일과 격려의 행복을 위한 길에 끌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겨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우호를 기어이 판榈화실 철석의 일념을 암시하고 통일위업실현의 길에 불면불휴의 토고와 심혈을 바쳐 가신다.

위대한 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승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과 민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어리이미 우리 세대에 밟거진 성스러운 민족적임무이다.』

조국통일을 자신의 승고한 사명으로 간주하시며 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모든 것을 다 바쳐 가시는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 통일위업실현의 길에 투쟁하는 장군님의 자욱은 그대로 위대한 헌신의 서사시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나날속에는 정녕 갑격 없이 힘들수 없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수없이 깃들어 있다.

주제 62 (1973) 년 2월 15일 깊은 밤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몇몇 일군들을 자신의 결으로 불러주시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몇시간 앞둔 뜻깊은 그밤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침집을 받아온 영광을 지닌 일군들의 가슴은 크나큰 흥분과 결정으로 끓어번졌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벽시계는 2월 16일 새날을 알리었다.

일군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경건히 웃음을 머리고 온 격려의 한결 같은 넘원을 담아 경애하는 장군님께 축원의 인사를 삼가 올리었다. 일군들이 이 올리는 인사를 사양하시면서 밝은 미소를 지으신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다가 자신께서는 생일을 모르고 계셨다고, 오늘 이렇게 동지들로부터 생일축하를 받고보니 마음이 이상해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격려 한 말씀에 일군들의 마음은 한없이 속연해지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장내의 분위기 를 물리시려는듯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나쁜 동물들이 나에게 주는 축하를 조국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는 맹세와 부탁으로 알고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우리는 가길은 아직 멀고 험난하지만 나는 동물들을 믿고 동물들과 함께 조국통일위업을 완성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시대를 더욱 빛내어나갈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정녕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지는 얼마나 굳세고 절절한것인가. 일군들은 민족분별로 격려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불철주야로 조국통일위업에 온갖 고로고와 심혈을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눈물을 죽였다.

어느덧 2월의 명절에는 이런 사연도 것들 있다.

뜻깊은 그해 2월 16일 저녁무렵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하고 계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무런 기별도 없이 조국통일관련 부서의 일군들을 찾으셨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동부들이 보고싶어 찾이왔다고,

조국통일문제를 함께 의논해보자고 소탈하게 말씀하시고는 밤길도록 통일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집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일이 바로 조국통일이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제일 심려하신다고, 조국통일은 민족지상의 업무이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조국통일의 자욱을 이어가신 깊이 못할 새벽의 이야기도 있고, 통일에 대한 송고한 사명감을 일군들의 심장속에 새겨주신 설날의 깊은 밤의 사연도 있다.

그 순간 순간들, 그 하루하루들로 이어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나서는 강령적파업들을 제시해 주신 그이께서는 창문을 여시고 심원한 사색이 비단 눈길로 남쪽하늘을 바라보이며 남조선인민들이 그립다고,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밤은 퍼가 깊어갔다.

뜻깊은 이밤이 다 지나가는 것을 못내 안타까워하던 일군은 마침내 경애하는 장군님께 오늘은 장군님의 탄생일이라고 정중히 말씀을 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생일? !』하고 놀라시며 웃으시였다.

일군들은 모두 일어나서 경애하는 그이께 심가 축원의 인사를 올리었다.

한없이 격려하고 소탈하신 그이께서는 다정하신 융성으로 그들의 인사를 굳이 전환한 국면을 기억에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은정철

이조로 전사가 무슨 생일인가고, 자신께서는 생일을 쇠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만민의 다함없는 축원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날에도 조국통일문제때문에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송엄한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으며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불라는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의 혼신의 나날에는 길가의 샘들 한모금으로 끼니를 우수하고 통일령도의 자욱을 이어가신 깊이 못할 새벽의 이야기도 있고, 통일에 대한 송고한 사명감을 일군들의 심장속에 새겨주신 설날의 깊은 밤의 사연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그 순간 순간들, 그 하루하루들로 이어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한한 경력과 품위를 끌어내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파로 고속에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니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여어 찬절하여 격려해 통일원조국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람에게 기분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이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조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높이 칭송

인민의 평상이 현실로 꽂혀나온 회의는 회의에서 일군들이 찾고자 했던 대회장으로 대회장에 펼쳐졌다. 회의에서 부의장은 경사스러운 명절에 맞으며 전체로 일군들이 찾고자 했던 대회장으로 대회장에 펼쳐졌다.

회의에서 부의장은 경사스러운 명절에 맞으며 전체로 일군들이 찾고자 했던 대회장으로 대회장에 펼쳐졌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 조선은 필승불패이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즐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 행사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네 팔의 까뜨만두, 단마르크의 폐 뱀 하분, 블스카의 와르샤와에서 8일과 9일에 경축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해당 나라의 정부,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집회들에 참가하였다.

집회장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네랄정부 청년 및 체육상가네쉬네랄리, 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씨, 피. 마이날리, 전국기자구락부 위원장 램 케이, 카르마차라는 김정일 각하는 협조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위대한 평도자 이시라고 청송에서도 그의 탄생일을 뜻깊게 경축하는 것은 네랄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기쁨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혁신력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위대한 평도자 이시라고 청송에서도 그의 탄생일을 뜻깊게 경축하는 것은 네랄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기쁨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로스센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의 협력사에 아로새겨질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이께서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사과 위업을 계승하여 조선을 불폐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계속되지만 미지 않아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전쟁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전진현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때 대 한 조선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혁신력을 모시기 김일성선집을 비

란 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려는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목표가 훌륭히 달성되리라고 확신한다.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에게 가장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블스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협회 위원장 보워지메즈 펠립스끼는 조선인민은 김정일 각하의 탄생일에 축하의 제도를 통해 공동사업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경제 강국건설을 위한 후생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새로운 양양기를 열어나가는 조선의 김정일령도자는 출신과 경력, 정경과 신앙에 관계 없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차별없이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의 정치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 각계 축을 하나의 사회정치적력으로 결속시키고 있다.

조선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일심단결된 나라이다.

이것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광폭정치의 결실이다.

신문은 김정일령도자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영적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말레이시아 신문 『광명일보』 1월 1일 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모시고 백두산밀영 고향집, 김정일화사진과 함께 『비상한 정열기』라는 제목의 글을 특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에 대한 철저한 계승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매우 독창적이고 심오하며 인민대중의 길을 황금빛으로 밝혀 준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의 사상에 대한 존경과 혁신을 위해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때 대 한 조선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혁신력을 모시기 김일성선집을 비

로운 양양기를 열어나가는 조선의 김정일령도자는 출신과 경력, 정경과 신앙에 관계 없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차별없이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의 정치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 각계 축을 하나의 사회정치적력으로 결속시키고 있다.

조선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일심단결된 나라이다.

이것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시는 광폭정치의 결실이다.

신문은 김정일령도자의 도량은 남조선과 해외의 많은

사람들을 감복시키고 있다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남조선과 함께 그에 회장

정주영과 그 일가에게 배울어 주신 크나큰 은정에 대하여,

그이에 의한 두차례의 혁사적

인 북남수녀상봉파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의 채택 등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10일 칭보자의 아까빠통

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령도밀

전시회에는 위대한 수령

이 정령적인 평도에 의해

하루에 100만 명이 모여

온전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

문화수준과 예술적 재능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전람회는 워르끼에 이스만불주 부장관은 전시품들을 모두 훌륭하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높은 문화수준과 예술적 재능에 탄복하고 있다.

그이의 정령은 장군님의

평도밀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워르끼에 이스만불주 부장관은 전시품들을 놓아서 조선인민의 높은 문화수준과 예술적 재능에 탄복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과 발언

들이 있었다.

로씨야 아르പ시 시장대리를

비롯한 인사들은 2월의 명절

에 즐기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도밀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워르끼에 이스만불주 부장관은 전시품들을 놓아서 조선인민의 높은 문화수준과 예술적 재능에 탄복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과 발언

들이 있다.

로씨야 아르പ시 시장대리를

비롯한 인사들은 2월의 명절

에 즐기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도밀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워르끼에 이스만불주 부장관은 전시품들을 놓아서 조선인민의 높은 문화수준과 예술적 재능에 탄복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과 발언

들이 있다.

로씨야 아르പ시 시장대리를

비롯한 인사들은 2월의 명절

에 즐기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도밀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워르끼에 이스만불주 부장관은 전시품들을 놓아서 조선인민의 높은 문화수준과 예술적 재능에 탄복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과 발언

들이 있다.

로씨야 아르파시 시장대리를

비롯한 인사들은 2월의 명절

에 즐기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도밀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워르끼에 이스만불주 부장관은 전시품들을 놓아서 조선인민의 높은 문화수준과 예술적 재능에 탄복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과 발언

들이 있다.

로씨야 아르파시 시장대리를

비롯한 인사들은 2월의 명절

에 즐기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도밀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워르끼에 이스만불주 부장관은 전시품들을 놓아서 조선인민의 높은 문화수준과 예술적 재능에 탄복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과 발언

들이 있다.

로씨야 아르파시 시장대리를

비롯한 인사들은 2월의 명절

에 즐기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도밀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워르끼에 이스만불주 부장관은 전시품들을 놓아서 조선인민의 높은 문화수준과 예술적 재능에 탄복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과 발언

들이 있다.

로씨야 아르파시 시장대리를

비롯한 인사들은 2월의 명절

에 즐기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도밀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워르끼에 이스만불주 부장관은 전시품들을 놓아서 조선인민의 높은 문화수준과 예술적 재능에 탄복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과 발언

들이 있다.

로씨야 아르파시 시장대리를

비롯한 인사들은 2월의 명절

에 즐기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도밀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워르끼에 이스만불주 부장관은 전시품들을 놓아서 조선인민의 높은 문화수준과 예술적 재능에 탄복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과 발언

들이 있다.

로씨야 아르파시 시장대리를

비롯한 인사들은 2월의 명절

에 즐기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도밀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워르끼에 이스만불주 부장관은 전시품들을 놓아서 조선인민의 높은 문화수준과 예술적 재능에 탄복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과 발언

들이 있다.

로씨야 아르파시 시장대리를

비롯한 인사들은 2월의 명절

에 즐기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도밀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워르끼에